



즉시 배포용: 2020년 1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20년 시정 방침(STATE OF THE STATE)의 서른다섯 번째 제안 발표: 퇴역 군인 및 경찰관의 자살과 노숙 문제 해결

제안에 따라 퇴역 군인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해 저렴한 주택 및 랩어라운드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500만 달러 투자 예정

퇴역 군인, 경찰관 및 응급 요원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노력에 100만 달러 투자 예정

비영리 '모던 스테이트(Modern States)'와 협업하여 퇴역 군인 및 현역 군인에게 '신입생 무료 프로그램' 더욱 확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퇴역 군인 및 경찰관 자살과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한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 어젠다의 35번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에 따라 주지사는 노숙자 주택 및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주 전역의 퇴역 군인 주택 격차를 줄이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에 퇴역 군인 및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정신 질환의 낙인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포함하여 자살 예방 이니셔티브를 조율할 것을 지시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퇴역 군인 및 현역 군인 가족에게 제공하는 신입생 무료 프로그램(Freshman Year for Free)을 연장하기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비영리 단체 모던 스테이트(Modern States)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퇴역 군인들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으며, 이 뉴욕주에서 우리는 그들이 건강하고 위엄있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이들을 기립니다. 올해 우리는 저렴한 주택 투자, 정신 건강 서비스 및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퇴역 군인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퇴역 군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렴한 주택 및 랩어라운드 지원 서비스 확대

퇴역 군인은 비퇴역 군인보다 노숙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노숙할 위험에 처한 많은 퇴역 군인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약물 장애를 경험하고 있어 이들이

안정된 주택에 들어가려는 노력이 어려워집니다. 지난 10년간 퇴역 군인을 위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퇴역 군인의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지사는 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주정부의 노숙자 주택 및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퇴역 군인 노숙자를 위한 랩어라운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는 저렴한 주택 개발 범위 내에서 주택 기회를 지정하므로 임대 보조금과 연방 바우처를 수령한 노숙자 퇴역 군인이 저렴한 주택에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은 지역 및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Services)와 협력하여 노숙자가 된 후 90일 이내에 퇴역 군인에게 영구 주택을 제공하고 임시 주택 및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합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TDA)은 2년마다 지역이 제출한 기존 노숙자 서비스 계획에 퇴역 군인 노숙자 섹션을 추가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임시 및 장애서비스 사무국(OTDA)은 각 지역에서 퇴역 군인 노숙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지역에 맞는 임시 및 장애서비스 사무국(OTDA) 지원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주지사가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접근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정신 건강 지원, 자살 예방 및 오명씻기 노력

미국에서 자살이 사망의 10번째 주요 원인이지만, 퇴역 군인, 경찰관, 교정직 공무원, 응급 요원들이 경험하는 위험은 훨씬 큼니다. 퇴역 군인 자살률은 전국은 물론 뉴욕에서는 일반 인구의 수치보다 높습니다. 뉴욕에서는 퇴역 군인 자살률은 100,000 명당 17.5명이고, 일반인의 경우 100,000 명당 10.5명입니다. 또한 더 많은 경찰관이 업무 수행이 아니라 자살로 사망합니다. 퇴역 군인, 경찰관, 교정직 공무원, 응급 요원이 각각의 직군에서 정신 건강 지원을 받는 것이 오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여 문제가 악화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지사는 100만 달러를 투자해 퇴역 군인, 경찰관 및 응급요원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와 협력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퇴역 군인, 경찰관, 교정직 공무원, 응급 요원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전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정부 기관에 지시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은 정신 질환의 오명을 없애고 이들이 앞으로 나서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대중 인식 변화를 비롯해 기타 서비스 제공 업체 및 퇴역 군인에 대한 기타 홍보 메시지 캠페인이 포함됩니다.

뉴욕주는 연례 자살 방지 컨퍼런스(Suicide Prevention Conference)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소집하여 이러한 특수 인력을 위한 자살 방지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신입생 무료(Freshman Year for Free) 프로그램 추가 확대

뉴욕주나 학생의 추가 부담 없이,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모던 스테이트(ModernStates.org)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이 자선 사업은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무료 온라인 대학 과정과 교과서를 제공하고 모던 스테이트(Modern States) 코스를 수료한 뉴욕의 퇴역 군인 및 현역 군인 가족이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00개의 학점 시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학점은 다른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캠퍼스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모던 스테이트(Modern States)는 총 33개 과목에 대한 교수의 최신 수업을 제공하며, 이 수업 학점은 대학 위원회(College Board)의 대학 수준 시험 프로그램(College Level Examination Program, CLEP) 시험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모던 스테이트(Modern States) 프로그램에 현재까지 180,000명이 등록했으며, 뉴욕 및 전 세계 학생들이 약 30,000 차례의 시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주지사의 이니셔티브는 뉴욕의 퇴역 군인, 현역 군인, 기타 모든 학생 및 평생 학습자에게 신입생 무료(Freshman Year for Free)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최대 1년간 대학 학점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 거주하는 약 750,000명의 참전 용사들에게 강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복무 중 장애를 얻은 퇴역 군인이 소유한 사업체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자금 지원법 제정, 주정부 최초로 퇴역 군인 및 군인 가족 정상회담(Summit on Veterans and Military Families) 개최, 퇴역군인에게 도움을 주는 로스쿨의 법률 클리닉을 후원하는 영웅을 위한 정의 계획(Justice for Heroes Initiative) 출범, 퇴역 군인 및 그 가족에게 일대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지원, 퇴역 군인에 대한 민사 서비스(Civil Service) 비용 면제, 자살 예방 태스크 포스(Suicide Prevention Task Force)에 퇴역 군인의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수한 권고안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지시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주정부 기관에게 퇴역 군인 노숙자의 수에 대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군대 복무 중이거나 복무 경험이 있는 뉴욕 주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퇴역 군인과 경찰관을 돕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